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영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중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간처: 서울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중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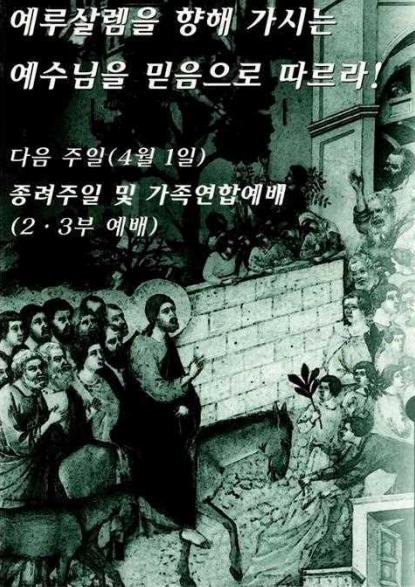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민 편집: 양재웅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라!

다음 주일(4월 1일)

종려주일 및 가족연합예배
(2·3부 예배)



제의 수요일(2월 21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을 통해서 중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을 심령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교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3월 31일까지)는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가 53장을 중심으로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시에 증거되고 있는 사순절 메시지는 적인들을 위해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못 박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4월 1일)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였습니다.(요 12:12,13) 그러나 군중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갈보리의 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눅 19:44) 심지어 예수님이 갈보리에 못 박는데 군중들은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요 19:6) 이 완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행 8:22) 종려나무와 사람들의 겉웃으로 열린 영광의 길이 아니라 겹세 마네와 갈보리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특히 종려주일 예배 시에는 온 성도가 그동안 금요찬양집의 시에 연습했던 <종려나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온 가족이 찬양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악보는 당일 주보와 함께 제공됩니다. 가족 연합예배로 드려지는 2·3부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영아·유아·유치·고등부는 자체 예배를 드립니다.

4월 교회 일정

1일(주) 종려주일, 피택자 훈련 개강예배(영양부 부대동)
2일(월)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60명까지)
6일(월) 성금요일, 제3차 성찬식(금요찬양집 시)
8일(주) 부활주일, 부활절 특별 찬양(찬양예배 시)

11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여전도의 중심, 수요일 1부 예배 후)
1·2·3 교육위원회 헌신예배(수요일 2부 예배 시)
경장기도회(수요일 2부 예배 후)
14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남전도의 중심, 오월 2시)
22일(주) 제2차 학습·세례식(찬양예배 시)

오월(25일), 주일 4부 예배 후 공동의회 (세례교인은 모두 참석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을 돌리라!(금요찬양집)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님을 향한, 하나님의 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로 뜨거워야 한다.(야 8:6,7, 요 13:14) 믿음의 삶,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매일의 활력소가 되어야 하겠지만 정작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도 점점 멀어져 가는, 믿음의 삶 속에 스며드는 영적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불같이 뜨겁기를 원하고 있다. 이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일 3:10,11)

우리들은 이성으로 생각하는데 매우 익숙해 있으며 천성적으로 수고 없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따르던 한 여인이 소리질러 외치고 있다.(눅 11:27)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질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다.(눅 11:28) 사사기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자부하였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땅이다. 그들의 삶 자체가 여호와와 섬기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다. 신자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자부하는 종교적인 삶이었다.(마 3:9) 그러나 인간은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삿 3:5,6) 아름다운 삶, 풍부한 신앙의 삶을 원하였다.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삶이었다.(삿 3:7) 이와 같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좇기에 너무나 바쁘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원하신다.(요 15:4)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사를 주심을 언급하며 그것을 생각하라고 한다.(딤후 1:6)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좋아한다.(마 12:24,25)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만 한다. 언제까지나 예레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 불평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멈추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진 것은 나의 책임인 뿐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하게 2장은 역사적으로 성전 재건축이 중단된 지 16년 후에 쓰여졌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성전의 기초를 세운 후에 큰 잔치를 열었다. 그 후에 이들은 모두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을 접지 않아 버렸다. 각자 자기들의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는데 마음이 풀려 버렸다. 장장 16년의 긴 시간 동안 그 빈터를 바라보고 지나왔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것에만 마음을 다 쏟으며 내 집은 황폐한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학 1:4,5)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이 관계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굳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학 2:4) 여호와께서 거듭 "굳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굳센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다.(골 3:10) 우리가 굳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주지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그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다.(요 16:33) 그러므로 인간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할런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대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열매이다.(딤후 4:13~15) 그대 가장 남의 눈치 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전심전력으로 하여 믿음의 진보를 다른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는 말씀이다.(딤후 4:16)

진정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로부터 우리들 자신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그리고 나 자신, 계획과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있다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골 3:1~4) 당시에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의 경험에 있는가? 아직도 과거는 죽었다고 하면서 초동학문,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 예의를 지는 것들로 권위를 누리는 자는 아닌가?(골 2:20~23) 믿음의 삶에서는 이런 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 모세가 죽은 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수 1:8)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쫓아내 버려라. 이제 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던 설교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2,3년 전에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한 한 말씀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사를 주셨다. 그들은 매일 새 만사를 받아서 먹었다. 하루가 지나면 벨레가 낡은 일을 기억하는가?(골 16:20) 벨레가 나가고 냄새나는 만사를 먹음으로써 만족했는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한다.

Sermon for Next Sunday

JESUS' HEART ON PALM SUNDAY

⁽⁴¹⁾When He approached Jerusalem, He saw the city and wept over it, ⁽⁴²⁾saying, "If y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But now they have been hidden from your eyes. ⁽⁴³⁾"For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throw up a barricade against you, and surround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⁴⁴⁾and they will level you to the ground and your children within you, and they will not leave in you one stone up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your visitation." (Luke 19:41-44)

When the time of the cross drew near, Jesus headed up toward Jerusalem. He traveled first through Jericho, where He healed a blind beggar and brought salvation to Zaccheus. All the people were happy and praising God. As He approached Bethphage and Bethany, near the mount that is called Olivet,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ahead of Him to prepare for His triumphal entry. They brought Him a donkey colt, placed their coats on it, and began praising God joyfully with a loud voice saying,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Lk. 19:38) The crowds of people were excited and started laying palm branches on the road in front of Jesus, which is where the word 'Palm' of Palm Sunday comes from. They sang "Hosanna" while Jesus wept. During His descent from the Mount of Olives into Jerusalem, Jesus had a full view of the city, and when His eyes beheld it, they shed tears. (v. 41) Everyone was happy and celebrating, but Jesus was sad and heartbroken.

God's people should have known the Messiah was going to come to Jerusalem, "So you are to know and discern that from the issuing of a decree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until Messiah...." (Dan. 9:25) The Jewish leaders should have been clued in when the crowds started praising Jesus at His triumphal entry, "Blessed i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s. 118:26) All the prophecies, spoken 500 years before, were coming to fruition. Jesus' triumphal entrance into Jerusalem occurred on a Sunday, what we now term as Palm Sunday, which was five days before Passover. The city was filled with God's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ho had come to observe this holy commencement. The Old Testament prophesized His coming, and the people were all there, but Jesus did not smile at them. Instead, He wept over them. Some of the Pharisees even rebuked His disciples for their loud praises, but Jesus told them, "I tell you, if these become silent, the stones will cry out!" (Lk. 19:40) What does all this mean? Why would Jesus cry when so many were singing praises to Him?

Jesus sees beyond the outward appearances of happiness and joy. When He saw Jerusalem, He cried, even though everyone was carrying on in excitement. He sees beyond the obvious and superficial. Externally, Jerusalem looked beautiful. There was a large turn out, people were joyfully preparing for the important religious ceremony, and many of them were laying palms at His feet singing to Him. Behind this outward beauty, what Jesus saw made Him weep. Many were happy to see Him, but when Jesus saw them, He saw the ruin and destruction inside. Will what He sees in your life make Him weep too? Jesus grieves over what He sees in your life. Every soul sitting here in this congregation, right now Jesus is crying. He is lamenting, but all of you are happy. Everybody is looking for earthly joy and many of you are excited about the upcoming Easter holy day, but no one is seeing the real picture, "I know where you dwell, where Satan's throne is." (Rev. 2:13) Jesus knows. He wept over Jerusalem because He saw beyond their world in their life. He sees through your facades which try to hide in world sin. Yes, He sees through your smiles and laughter that hide inward tears. Jesus always sees the truth.

Jesus cares about your pain. Even though Jerusalem was smiling and laughing, He wept over them because He loved them. His primary

concern is your sin. Every act of disobedience brings pain, for all sin has negative consequences. Since the Garden of Eden, all are headed toward death. As Jesus cried, He said, "If y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But now they have been hidden from your eyes." (v. 42) Do you think you can avoid or hide sin? Do you really believe you can have victory over sin through your own efforts? Do you assume that by reading a book or following a prescribed method that you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Do you imagine that you can travel to heaven by yourself? All these ideas are garbage, and in the end will just give you pain. How much did Jesus know this truth when He looked at Jerusalem! My friend, Jesus is God's only answer to sin. Jesus is God's love for this world. Through Jesus your pain ends and your joy, and I am talking about abundant joy, begins!

Jesus brings peace. Zechariah 9:9 says,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in triumph, O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He is just and endowed with salvation, Humble, and mounted on a donkey, Even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Jesus came into Jerusalem with peace, but they lost it. Jerusalem means city of peace, but its name was fake, for it was filled with hypocrites and the devil and was ultimately destroyed in A.D.70. Its people sang "Hosanna, forever and forever" to Jesus, but four days later sang a different tune, "Crucify Him, Crucify Him". They respected only human authority and fame, and even tried to bury the real Messiah in their land. There are people in this church smiling and praising God on the outside, but inside they have kicked out the blessing from God. They are more interested in material wealth, respect, and comfort. Jerusalem is supposed to be a city of peace, and peace is a beautiful word, but in reality it is a city of war, enemies, and curses. I have wept over this church for almost ten years. I brought the gospel, which is the good message from heaven, a most beautiful and eternal message, but you ignore, rebuke, and reject it. God brings the peace, but you keep looking for earthly happiness and worldly fame. Even though you use Jesus' name at church and sing "Hosanna" to Him, right now, at this moment, He is looking at you and He is weeping. Whose will do you live under? Do you want to keep achieving your own will instead of denying it?

My dear friend, do you really miss and long for your eternal home in Jerusalem? Where is your will? Are you singing "Hosanna" while Jesus weeps? I want you to weep. I want you to repent. I want you to ask for God's peace by praying right now, "Oh Jesus, bring your peace into my heart." He is riding on a donkey, coming to you, and I hope that He is not crying. When He looks at you, I want Him to be happy, and to call out your name like I want Him to call me, "Oh my dear Sung Kwan Kim, come to me, I am your Messiah." Don't laugh at your own will and fame, just cry out to Jesus, "I took my cross, I came to you, I kneel down to you, I call you my Lord, my Savior, please forgive me and make me Your own because I want to go to the real Jerusalem and be with you forever." Jesus is calling you to surrender. He is really crying, "Lord,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This was His prayer on the cross, do you hear it? Right now, at this moment, our church is like the city of Jerusalem. We are the body of Christ, and I want Jesus to be happy for you and for me. Instead of Him crying, let us cry. Amen. 🙏

다음 주일 설교

총려주일에 예수님의 마음

“(41)가까이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43)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41~44)



김성관 목사

심사자를 저야 할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눈먼 기자를 고쳐주셨고 삭개로를 구원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근처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을 가운데 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귀새끼를 데려와서 그 위에 걸음을 깔고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눅 19:38) 무리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며 노래했습니다. 이 날을 ‘총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 정반대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동안 예수님은 앞으로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아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41절)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만이 홀로 슬퍼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임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언하라는 영이 내 때부터 기를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임하기까지라.”(단 9:25) 유대적 지도자들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승리에 찬 입성을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메시아이심을 이미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같이 너희를 축복하였도다”(사 118:26) 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들이 이제 결실을 맺으며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유월절을 닮게 앞둔 주일, 곧 지금의 총려주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군중들이 큰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리라”(눅 19:40) 이 모든 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영혼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복과 즐거움 이면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흥분에 들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 너머를 보십니다. 외관상 예루살렘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중요한 절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발 아래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이 아름다운 장면의 이면을 본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패화와 파멸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셨다고 울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슬퍼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곳에 모든 각 사람의 영혼을 보시며 지금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애용하며 슬퍼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부활주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실상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니니 거기는 나의 위가 있는 데라”(제 2:13)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 너머를 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 속으로 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미소와 웃음 뒤에 감추어진 영혼의 눈물을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을 보시며 우십니다.

고통을 돌아보시며 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돌아보십니다. 비록 예루살렘 사람들은 웃으며 떠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관심은 여러분분의 죄에 있습니다. 모든 불순종은 고통이 따르니 마련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에서의 범죄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42절) 여러분은 죄를 피하거나 완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까? 책을 읽거나 설명된 방법대로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힘으로 천국까지의 여정을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생각들은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께 고통만 안겨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같은 진실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고통은 끝이 나고 차고 넘치는 기쁨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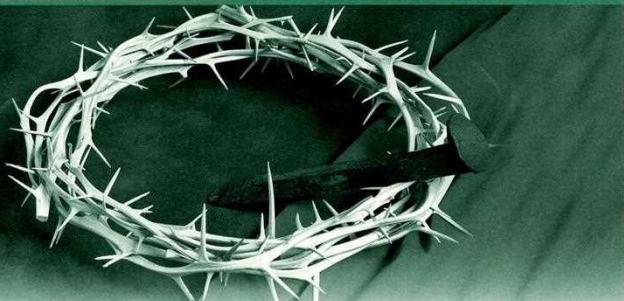
평화를 위해 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다주십니다. 스가랴 9:9은 말합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라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예수님은 평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곳은 위선과 악이 가득했고 결국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산나, 영원 영원하!”라고 노래했지만 나을 뒤에엔 전혀 다른 말을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이 존경한 것은 오직 인간의 권위와 명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자 메시아를 배반한 뒤에서 매장시키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걸로트는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건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와 존경과 전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평화,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곳은 전쟁과 대적, 저주의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위해 십 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소식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하고 비관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가져다주셨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적인 행복과 명예만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순간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호산나”를 외친다고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뜻을 보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행복과 명예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집을 그리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울고 있는데 여러분은 입으로만 “호산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시기 위해 어련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세 마음을 불러주시기를 바라는 만큼 여러분께 보고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리 오라, 나는 너의 구세주니라.” 자신의 뜻과 명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라! 마시시오. 오하여 예수님께 올면 구 고백하십시오. “네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이제 당신께 나의와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를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울부짖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십니까? 지금 이 교회는 그 때의 예루살렘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며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제에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3. 21.)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구주 (이사야 53:7)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야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였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사 53:3)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도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실로 슬픔의 사람이셨다.(사 53:4)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700년 전이었지만 매우 상세하게 예언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그러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양처럼 무지몽매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구주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사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7)

곤욕 속에서 침묵하시는 주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셨음에도 침묵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곤욕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유다의 제자를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곤욕 속으로 들어가셨다.(마 27:46,47) 심지어 배신자의 거짓 입맞춤에도 순순히 응하셨다.(마 26:49)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시길 뿐이었다.(마 26:59,60,63) 결국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떠돌던 제자들마저 떠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길 뿐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보았음에도 아무 말이 없으셨다.(눅 22:59~61) 그저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실 뿐이었다. 예수님께 자존심, 인격은 없다. 오직 십자가뿐이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자존심을 못 버리고 율법과 전통을 내세우며 곤욕 속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부인하고도 어떻게 잊지 않겠는가?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회개한 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베드로가 곤욕 속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였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일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행전 2:22,23) 곤욕 속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괴로움 속에서 침묵하시는 주 예수님은 참기 힘든 괴로움에 있었지만 침묵하셨다. 진자 쳐수였던 바리새는 놀임을 받고 무찌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마 27:26) 이에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을 뱉는 등 온갖 희롱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마 27:29~31)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리우라”고 사병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모욕하였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 2:5~7)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와 괴로움 속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당시의 로마군병과 유대인들처럼 욕할 것이다. 자존심을 움켜쥐고 자신의 행보를 추구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 이 악한 모습을 회개하자.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괴로움 속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잠잠한 어린 양이었다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사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셨다. 그러나 어린 양의 침묵으로 구원은 완성되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출 12:3,7) 그들이 머물던 고센 땅이 어린 양의 피로 물들었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문

에 있는 집만이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라”(출 12:27)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다.(요 1:29)

곤욕과 괴로움 속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잠잠한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구주 예수님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자존심과 교만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입을 벌려 소리치고 있지 않은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입술을 닫고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외치자.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열심을 낼 때 우리는 남이 실패한다. 그러므로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 열려 있는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내게로 오라”(마 11:28)고 예수님이 우리를 간절히 부르신다. 이 은총의 부르심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주님의 소리를 들어 보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찬 321장) 아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충성스러운 도구, 감사위원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교회의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가득찬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저자들이 사용되고 있음에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기관들은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였고 예산집행 후 잉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일시 소진하거나 유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산하여 교회에 반납하였습니다. 단 기선교팀들도 선교를 마친 후에 예외없이 선교비를 정산하여 잉여금을 정확하게 교회에 입금시켰습니다. 후원기도원과 후원동산은 헌금을 교회에 정확하게 이체하고 교회에서 배정받는 예산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교회의 예산없이 자체 회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들에 대하여도 그 회비가 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감사를 실천한 결과 권사회, 안수집사회, 찬양대 모두 그 재정과 회계가 교회의 방편에 맞추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권사회와 안수집사회는 적지 않은 잉여금을 교회에 헌금하고 신년도에 다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땅 팔을 향한 단기선교와 장학금 지급이 확대되고 복음화 전하기 위한 다양한 일들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교회의 재정만 해마다 건실해지고 감사 감사가 넘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후 4:15)

감사위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감사(監査)를 할 때마다 항상 주님을 향한 감사(感謝)로 찬양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 십자가의 은총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오히려 감사위원회가 교회의 5대 목표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도구가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박흥규장로, 감사위원장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선교를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매년 가는 습관적인 선교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철저히 드러나게 하였고 깨뜨리고 다듬으신 다음에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팀원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좋아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꺾으시려고 제십에 재심을 거치게 하시고, 저는 회개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나 자신과 나의 경험 때문에 사역이 자주 힘들어지자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치열함을 느끼면서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느 마을을 가나 조종하고 비웃는 아이들이 따라다녔고, 수처신과 나태함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사탄을 대적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선교지에서는 비웃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년에 비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읽는 사람, 교회에 나가는 사람,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는 세력과 사탄의 편에 서는 세력이 눈에 띄게 나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사탄의 편에 서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킬링필드의 암울한 사태를 거쳐야 했던 선교지였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고 있는 그곳은 더 이상 암울한 나라가 아닌,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나라임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신용현(교사, 총동3부 1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낯선 선교지에서 언어소통도 되지 않는 이곳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도를 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움과 궁급함이 교차되었다. 드디어 사역 첫날, 복음의 불모지에 내던져진 특공대가 된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준비했던 전도언어가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눈짓, 몸짓으로 때우며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둘째 날, 셋째 날 우리들의 언어실력은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외젠던 문장들은 거의 잠꼬대라도 나를 정도가 되어 단어들을 꿰어맞춰 보는 응용력까지 발휘하게 되었다. 달달 외운 언어로 써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팀장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 애쓰며 마음을 나누고자 했다. 그들의 영혼이 너무 예뻐 주석주석한 흥먼지, 발발에 핑구는 짐승의 배설물, 더러운 그들의 겉모습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선뜻 다가가서 담석 안아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다.

조선미(집사, 할렐루아전담대 1팀)

선 · 교 · 일 · 기

사역 1일째 / 이제야 돌아킬 수 없는 시작이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야말로 내가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낯선 땅의 공기, 땅의 냄새, 승리가 예정된 전쟁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기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

사역 2일째 / 사역지에서는 말이 정말 통하지 않는 마을이 많았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도 정말 많이 만났다. 어떤 마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접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는 그들 부자의 모습이 꽤 따뜻했다. 우리는 아들에게 성경을 주고 돌아왔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었다. 그저 전도지침을 넘겨주었을 뿐인데 그들은 스스로 복음을 크게 읽고 받아들였다. 모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사역 5일째 / 쫓겨나서 신난다.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쫓아내서 더 신난다. 밝히고 밝히는 나, '그래 더 밝아라. 그럼수록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릴테네!' 전도지도 필요 없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도 전도지를 받아든 한 아저씨를 만났다. '이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마을에 오게 된 거구나!'

사역 6일째 / 내 눈에 띄는 모든 사람이 내가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나는 마치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한 마을을 누비고 돌아다녔다. 십자가의 복음은 살아서 운동하였고 전도지를 꺼내놓고 복음을 전할 때, 도망가던 한 아이가 진지하게 들었다. '그 작은 두 손을 꼭 모으고 눈 꼭 감은 채로 영접 기도하는 아이의 순수함이 나에게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아이가 귀하고 귀했다.

사역 마지막 날 / 이 땅이 나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교만한 자아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것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날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던 이 죄인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리다.

김민재(대학부 3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 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3월 28일(수) ~ 4월 5일(목)	13교구 1팀	정철규

내 생각을 버리면 이렇게 쉬운 것을

비행기 시간 때문에 한참을 공항에서 소요하다 보니 화가 났다. '비행기 시간을 뭐 이렇게 잡나?' 한두 시간 투입될 거런 후에야 저만치 떨어져 담담히 외지에 앉아 계신 팀장님이 보였다.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선교를 놀러가는 것이 아니다. 죄인을 들어 쓰시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코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시작했던 걸음이 아닌가? 지금 내 태도가 참 어리석구나!'

선교지에서는 첫날 밤이 조금 힘들었다. 잔디지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쳤다. 그러나 상황은 차차 호전되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도 안 부러졌다. 나에게도 주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쉽지 않았다.

'이런 게 문전박대라는 것이구나!' 내 바로 그 앞에서 문이 광활 단했다. 인생을 잔뜩 쪼그린 할머니가 욕지거리를 마구 내뿜다가 확하니 사라졌다. 발에는 소동과 개통이 벌히고 계속된 사역으로 종아리는 빠근빠근했다. 하지만 영접하는 영혼을 만나게 되었다. '진정 이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야 가능했던 일이었을까?' 정말 부족한 언어실력이었다. 다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내가 그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길 바랬다. 그 영혼이 제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이 단 하나뿐인 진실을 읽어주기를 바라며 매달렸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 사람 안손을 꼭 잡아주었다. 구원받은 그 영혼은 물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했다. 교회의 선교방식에 회의를 품어왔던 내가 밝은 땅 위에 씨앗이 뿌려지듯 믿음의 씨가 뿌려졌다.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이렇게 쉬운 것을...'

나의 생각과 걱정은 철저한 자기부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었다. 그 뒤로 사역 지에서 적지 않은 영혼들을 만나 더욱 달래주신 이름의 힘을 외칠 수 있었고, 많은 영접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곳에 더 이상 나는 없었다. 다만 '주께서 쓰심'만이 있었다. 주님에 의해 쓰여지는 도구는 마음에 의심이 없고 평안하다. 내가 그랬다.

김지희(대학부 1팀)

내 마음 속의 화약창고



난 세상에 발을 내딛기 전부터 교회에 발을 내딛었다. 신생아실에서 나오고부터는 교회에 나왔고, 엄마 젖을 먹을 때도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 뒤로도 물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가는 것은 나에게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가는 것은 밥을 먹고 잠자는 것처럼 단지 일상적인 일이었을 뿐이었다. 교회를 가는 것은 오로지 '습관'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교회에 가는 참된 이유를 어렵잖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뚜렷하지도 않고 어떠한 갈등함도 없었다.

이런 나에게는 주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 2월 23일 제1차 청지기훈련! 말씀이 화약이 되어서 내 안에서 터지기 시작했다. 그 동안 조금씩 조금씩 폭작 놀러놓은 화약에 불을 당긴 것이 바로 이 청지기훈련이었다. 비록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음에도 예수님은 바로 이 때에 터트리시려고 내 맘 속 깊은 곳에 화약창고를 지어 놓으셨던 것이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속 깊은 곳에 마련된 화약창고로 흘러들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 저녁에 터졌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주셨다. 예전의 나쁜 습관은 하나님께 불을 당기셨을 때 이미 터지고 태워져 사라졌다. 어머니나 남의 눈을 의식하던 교만, 거짓, 위선덩어리 육체는 이미 소멸되어 버렸다. 새로 거듭난 내 영혼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날 이끄신 성령님의 손을 잡고 아람자장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 가고 있다.

추수훈(고등부)

저, 아파 보여요?

"또 병원에 입원했어! 열일이나!" 하려면 걸어나는 종합병원이라니깐!" 쉬지 못하고 피로해서 생긴 열 몸살로 말미암아 신장에 열증이 생겨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집사님들과, 나를 알고 있는 분들의 근심어린 사랑의 표현이지요. 수월 다섯 번, 지금도 감상선, 당도, 신장(사구체신염)으로 조금 고통받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 아픔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구요?"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고장난 저를 고쳐서 사용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또한 복을 전할 때, 병상에 누워 있는 약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나의 나약함과 병약함을 말하며 "저, 아파 보여요?"라고 말하며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있지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버리고 의지할 때면 주님은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세상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시시때때로 주신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니다. 말씀을 읽었다고 성경을 펴놓고 변명 퍼우며 겉돌고, 기도할 맘 있으나 머뭇머뭇 기도를 쉬는 죄 범하고, 이렇듯 내가 영적으로 곤비하며 갈급하여 힘들 때 예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가슴에 쓸모없이 박힌 교만의 돌을 빼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고 주님의 은혜 잃인 문지랑조차 건널 수 없을 만큼 연약한데 그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래와 꺾져가는 등불과 같은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화물의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요.

나는 자식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것이며 무덤의 자녀라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으며 무엇이 나를 대적했는지요.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죄인인기에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보람의 옷을 나에게 입히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김달수(집사, 10교구)

처음 맞이한 아주 특별한 시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교회에 나와서 처음 맞이한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꼭 이런 절기를 통해서 묵상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연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책을 대로 쓰고 굶어질 대로 굶어버린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만들었다.

요한복음을 강해하시는 위임목사님의 말씀 중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의 말씀은 죄인인 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닫도록 하셨다. 특별히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내 머리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하시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를 손에 못 박히심으로, 발에 못 박히심은 내가 발로 지은 죄를 사하시려고, 허리를 통해 십자가까지 들어간 참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은 더욱더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하였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고난을 싫어하고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와 한국 교회의 현주소라든가 깨달음을 준다. 이처럼 죄인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비롯한 모든 죄인들에게 은총의 말씀을 주신다. 믿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담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좋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도록 새벽마다 나를 깨우는 예수님이 정말 좋고 예수님께 감사한다.

신병석(성도, 1교구)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몽골 자매 아기는 한국말을 잘 못한다. 그러나 그녀가 분명하게 발음하는 말이 있다.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이다. 아기 자매는 4년 전 남편과 코리아드림을 이루어 한국에 왔다. 한국 땅에서 돈을 벌어 성공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녀의 아무진 계획이 있어서였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달랐다. 아기 자매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한쪽 팔을 잃었다. 작업기계가 그녀의 팔을 잘라버린 것이다. 그리고 잘린 팔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인에게 사기당하여 모두 잃어버렸다.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기 자매는 믿음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신 전부터, 잘린 팔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항생제 때문에 일어난 아기가 기형임이 판정되었다. 의사는 인공유산을 권고하였다. 그녀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사게오를 찾았으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에게도 찾아오셨다. 그들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비록 병역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은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지난 여름부터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성령운동의 크리스마스 메시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낸 마리아의 가적은 세상을 찾아왔던 그녀와 그의 남편을 회개시켰다. 그리고 위임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아기 자매는 인공유산을 거절하였고 아기를 낳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분명 십자가를 지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었다. 그러나 자기부인을 위한 주님의 일하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산고 끝에 낳은 아이는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어린 생명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아기 자매가 복음했던 항생제로 인한 결과였다. 어떤 말로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기 자매에게 고백하게 하였다.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몽골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진 그녀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어린 생명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가 소생한 것이다. 아기 자매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다.

아기 자매는 한 쪽 팔이 없어서 아기를 목욕시킬 수도, 안아줄 수도, 젖을 물릴 수도 없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말무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다.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그것은 은총이다. 모든 것을 잃고 예수님을 만난 아기 자매를 통하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예수님께 기도한다.

*아기 자매 가까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었던 외선부 교사



교회탐방 전도위원회(남전도회 총력 교회주변 전도)

전도에 내일은 없습니다!

매일 둘째 주 수요일은 여전도의 중심으로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남전도위원회 매일 둘째 주 토요일에 모여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 드리고 있는 복음의 앞꾼들을 만났다.

2007년 전도위원회는?

전도하는 전도회는 초점이 있습니다. 특히 남전도의 중심의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남자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강정형 장로, 전도위원장)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전도에 모든 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윤성민 장로, 전도위원)

남전도의 총력 교회주변 전도는?

3년 전부터 교구의 남전도회에서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던 차에 남전도의 전체가 모여 전도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박미련 안수집사)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아모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전도지만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대상자들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강정형 장로)

지난 1년 동안 전도 동역자와 함께 꾸준히 전도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 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도를 하니 조금씩만 모여 주셨습니다. (안병택 장사)

모든 남전도위원들이 함께 모여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대담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윤성민 장로)

정작으로 토요일에 시간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 번이라도 전도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를 하니 좋습니다. (이성근 집사)

총력 교회주변전도를 통해서 만난 영혼들은?

저의 교구 담당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10년 이상 연력이 두절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인인 친구를 만난 기쁨과 더불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김영태 안수집사)

역 주변에서 가수지망생을 만났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에 가 보겠다"라는 말을 남긴 뒤 그 청년과 저는 헤어졌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뿌리진 복음의 씨가 얼마 맺기를 기도합니다.

(안병택 장사)

역삼역 구내에서 60대의 남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외면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진짜입니다!"를 반복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록 여러 반응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열린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강정형 장로)

전도를 하면서 받은 은혜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남은 삶은 오직 전도하는 데 헌신하라'는 목표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안병택 장사)

전도 후에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보지 못한다. 기쁨으로 충만한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 그래서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윤성민 장로)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우리 전도회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성근 집사)

남전도의 총력 교회주변 전도의 참여를 소망하며?

전도에 내일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전도의 때입니다. (이성근 집사)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에 하나님입니다. (강정형 장로)

기회가 있을 때 다 함께 모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윤성민 장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어 하듯이 삶의 중심에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안병택 장사)

기도제목 및 하고 싶은 말은?

전도가 선교를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영태 안수집사)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박미련 안수집사)

전도가 중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성근 집사)

매스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미련 기도하고 용어지전 전도합니다. (강정형 장로)

남전도의 중심의 총력 교회주변 전도는 매일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총 8개의 지구(1~4교구, 5~9교구, 10~14교구, 15~18교구)가 영성훈련 후 각각의 담당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간다. 아직은 남전도위원들의 참여가 그리 많지 않지만 기도원의 새벽 소망의 승리가 그들의 것이 되리라 확신한다. (편진국)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종려나무 (J. B. Faune 曲)

우리는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순절을 지나며 묵상해 보건대 참으로 충현교회에는 생령력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함을 실감한다. 연속으로 이어지는 새벽기도회와 말씀, 무엇보다도 예배를 수 없는 금요찬양집회이다. 은혜가 넘치는 위임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 성도들의 눈물과 기쁨의 목소리가 매주 그 넓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특히 전교인이 찬양대가 되어 <할렐루야>를 시작으로 <거룩한 성>, <거룩한 밤>, <주기도>, <종려나무>, <생명의 양식>으로 은혜롭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새로 배우는 종려나무는 나의 마음에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게 한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은 세상 모든 사람 주께 영광 돌리세...우리를 구하려 오신 내 주님께" 분명 유대 백성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호산나" 찬양을 드렸다.(요 12:13,14) 그리고 그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찬양하던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다.(요 19:14,15) 나는 이 찬양을 부르며 두 가지 감정으로 빠지게 된다. 그리고 감히 죄인된 자가 앞뒤에서 서서 성도들을 바라본다. 많은 성도들과 눈을 맞추며 가사를 한 소절 한 소절 열심히 불러 본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은 세상 모든 사람 주께 영광 돌리세" 성도들과 한 호흡이 되어 찬양을 드리며 어리석은 유대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 인도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된다.

"호산나 찬양하라 우리를 구하려 오신 내 주님께" 이 호산나의 외침 속에는 분명 소경 거지 마다메오와 삭개오도 있었을 것이다. 마다메오처럼 겉옷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뿔나뿔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처럼 열심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어찌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 수존 높은 곡물을 어떻게 아름답게 부를 수 있겠는가' 온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모두가 주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밝히 깨닫게 된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한 충현교회에서 되어서 종려주일과 함께 <종려나무> 찬양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김현섭(집사, 찬양위원회)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69	노혜진	19	청년1부	한용태(8)	494	권민우	19	대학부	권승택(5)
470	조보람	9	청년1부	김정현(11)	495	전영환	10	청년1부	송한민(8)
471	라희	19	외선부	이민숙(14)	496	조경태	19	대학부	구재환(2)
472	최승훈	19	청년1부		497	김소정	3	청년2부	김연(4)
473	박광주	5	청년2부	박지현(8)	498	윤수현	1	소망부	이현진(1)
474	김진혜	5	청년1부	박은주(8)	499	김진혜	12	청년2부	윤정진(12)
475	전진정	19	대학부		500	김진희	19	대학부	최현준(13)
476	이민숙	8	청년2부	김광현(17)	501	오인성	4	청년2부	김준희(8)
477	홍윤정	19	청년1부	김영미(8)	502	갈라	19	외선부	양은숙(10)
478	김재현	3	청년1부	오정훈(8)	503	호미가	19	외선부	백민숙(1)
479	김종훈	7	소망부	전복순(2)	504	홍민	19	외선부	박경혜(11)
480	정리나	19	외선부	박경혜(11)	505	타라	19	외선부	박경혜(11)
481	이수진	19	대학부	한종훈(8)	506	이성향	14	청년1부	최현준(13)
482	임영문	2	청년2부		507	김소정	11	청년2부	박경혜(12)
483	정숙자	2	청년2부		508	전진희	19	외선부	이영진(18)
484	정혜숙	4	청년1부		509	시라라	18	소망부	김희영(18)
485	이성훈	19	청년1부	박은혜(10)	510	김지현	8	소망부	박경혜(11)
486	김영문	12	청년1부	이영순(12)	511	김근국	9	청년2부	문경태(10)
487	이종훈	19	청년1부	김진현(11)	512	이하나	9	청년2부	문경태(10)
488	노성민	19	대학부	최현준(13)	513	이영진	19	청년1부	박경혜(12)
489	이하나	19	대학부	오준보(8)	514	김은정	12	청년2부	정국영(18)
490	이하나	14	청년2부	전진희(17)	515	전영환	12	청년1부	정국영(18)
491	정영문	9	청년1부	최경혜(12)	516	박성영	19	대학부	이기민(2)
492	한성희	19	대학부	이승미(12)	517	윤영희	19	청년1부	
493	한성희	19	청년1부	홍정화(4)	518	이민숙	19	청년1부	

* 총연합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 찬양감독